

2017년 12월 13일, 애월읍 봉성리 봉성리경로당, 이효순 조사.
홍승화(남, 1944년생, 애월읍 봉성리)

- 줄거리: 봉성리에 있는 풍년이궤에 가서 말뚝을 박고 오면, 노름에서 잃은 돈을 모두 돌려받기로 하는 내기를 하였다. 노름에서 진 사람은 무서워하며 풍년이궤 앞에 말뚝을 박다가, 말뚝에다 자기 옷자락을 같이 박아 일어서려고 하니 옷이 찢어지는 소리에 혼비백산하여 달아났다. 내기를 한 사람은 그것을 그냥 이긴 것으로 인정하여 돈은 돌려주었다. 하지만 노름에서 진 사람은 넋이 나갔는지 삼 년도 못 살고 죽었다.

[제보자] 옛날에 시골에 앗이믄 겨울 농한기에는 구들에 앗양 화토를 많이 첫주게. 경 헌디 훈 사람이 돈을 좀 많이 밑쳤어. 진 사람 보고
“내기 청 이기믄 내 돈을 주마.”
허난. 그 내긴 뭔 내기냐 허믄 저 구물리 아래 내려가믄 풍년이궤엔 헌 디가 있어.
“풍년이 가믄 그디 강 말툭 강 박아동 오민 내 노름허영 밑진 건 다 주주이.”
허난. 아. 경 허키엔. 게난 이 양반이 이젠 무슨 와도 머리끗이 와싹해도 간 거라. 내창 풍년이궤에.

[조사자] 풍년이궤?

[제보자] 풍년이궤. 경 허연 앗안 급헌 짐에 말툭 닥닥 박안 일어사Zen 허난. 후리메에 골이 난 박아 분 거라. 경 허연 재기 일어사난 ‘바악’ 부려지는 소리가 난. 이젠 귀신 낫Zen 허멍 혼비백산허연 막 뛰어오는 거라. 집더레.
뒤에서 영 급안 반 내기 건 자가. 허난. ‘아. 요 사람. 요거 용긴 있어.’ 허난.
내기 천 그 사람이 이겼단 말이라. 경 허연 돈을 주고 헷는다.
그 사람이 그 넉으로 허연 삼 년도 못 살안 죽었다 허여. 영 헌 전설이 있어. 이제 그 궤가 잇주. 하천정비 사업에도 안 헷일 거라. 그 궤가 워낙 높고 커 노난.

- 핵심어: 풍년이궤, 노름, 내기, 말뚝, 혼비백산, 돈